

한라시론



김 상 환
전 광주우총영사·전 국제대 교수

작금의 한·일 갈등은 준비 없는 이별처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조짐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물론 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많은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뒤로 한 채 스스로 험난한 미래를 선택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지도층은 지속적으로 숙고해야 할 것이다. 증오와 적대감은 개인관계 뿐만 아니라 국가관계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당사자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면 잘못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일이 아닐 수 있다

극일과 국보 1호 재지정 운동에 대한 단상

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국보1호 재지정 문제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잃어버린 역사 찾기에 오랜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943년 조선총독이 지정해준 대한민국 국보1호 숭례문에서 한글의 원형인 국보70호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교체 지정'을 제기한 이종석 탐라블루베리농원 대표의 열정을 보면서 진정한 국일 방법의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기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에 더해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어 언 듯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것 같다는 우려를 갖게 할 수도 있겠으나,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와 자존감을 회복토록 국보1호를 재지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올해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즉위한 6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남

대문이 대한민국 출범 후 국보1호가 된 역사를 살펴보면 개운치 않은 점과 더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지 의문이 들었다. 현실 정치에서 역대 정권을 보면 정치적인 인기가 없거나 일시적인 지지를 제고를 위해 한·일관계를 이슈로 내세우려는 유혹을 국내 정치권에서는 줄곧 느껴온 것 같다. 현재의 한·일관계 균열은 과거와는 다른 예측할 수 없는 '가보지 않은 길'로 들어선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한·일 갈등의 되풀이가 양국 국민에게 예기치 못한 더 큰 상처와 값비싼 교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대가 지불이 너무 크고, 당대가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든다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갈등을 극복해 나갈 여력을 충분히 따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내외 정세가 어려울 때마다 '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 위기를 모면코자 절치부심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응급처치 수준 의 대책을 마련해 온 역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견지명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백년대계를 개척하려는 지도층의 사명감과 국민의 역사의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일 갈등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로 승화될 수 있다면 손실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국보1호 재지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걸기를 보여주어 작은 결실을 맺는 용단이 현실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울러 우리는 품격 있는 한국인으로 새로운 희망의 지평을 열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변국들과 새로운 건전한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자각과 지혜를 응집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사설

더 이상 제주도민의 염원 짓밟지 말라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회가 휴가철에도 모처럼 '안보국회'라는 이름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119일만에 처리하고 여야 정쟁이 없는 법안 142건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은 '제주4·3특별법'과 6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관련 법안의 처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달 중순부터 결산안 심사에 나시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함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는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만큼 '제주4·3특별법' 등 1만 4800여건에 이르는 각종 법안 심의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회와 원회통 지사가 나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도 여야는 그 때 뿐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나마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어 다행입니다. 여야는 20대 국회 4년 동안 법안 처리율이 27.9%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도 마지막에 있습니다. 연내 제주 관련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바라는 제주도민의 염원을 더 이상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경쟁력 잃은 농공단지, 새 활력 불어넣자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농어촌에 또다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이 현지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도·농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달리 제주도내 농공단지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제주도내 농공단지는 1990년 1월 지정된 대정농공단지(면적 11만5273㎡)를 비롯 구좌농공단지(1988년 8월·6만7481㎡), 금능농공단지(1992년 11월·13만110㎡) 등 3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고시된 제주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보면 농공단지 3곳의 시설은 매우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 기준 기반시설 노후도는 평균 27.7년이며, 건축물 노후도는 대정 95.5%, 금능 56.5%, 구좌 54.5%로 조사됐습니다. 종사자 수는 소폭 증가하고

가동률은 평균 94.4%에 이르지만 가동업체는 1곳 이상씩 줄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은 금능을 제외한 대정·구좌가 생산액의 1%도 안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공단지가 이처럼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그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국 농공단지 진단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전국 471곳의 농공단지와 7413개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시설이 낡은데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에 처한만큼 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부정적으 비쳐졌던 농공단지가 농어촌 주민을 위한 산업단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뜨거운 놀이터



박 소 정
편집부 기자
cosorong@ihalla.com

우리 가족은 동네놀이터를 즐겨 찾는다. 대부분 바깥놀이를 좋아하는 아이의 손에 이끌려 가지만, 집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가볍게 아이와 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아이의 즐거움 표정도 놀이터를 찾는 이유를 더해준다. 그런데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이 소중한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졌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놀이터마저 뜨거워졌기 때문이다. 햇볕에 달궈진 놀이기구들, 어른이 살짝 손을 대도 뜨거운데 혹시나 아이가 화상이라도 입을까 걱정돼 조심스러워진다. 실제로 지난 6월 18개월 된 아기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손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뜨거운 한낮도 아닌 오전

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금 같은 한여름엔 위험요소가 더욱 다분하다. 여름 놀이터는 안전 사각지대이다. 놀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사계절 내내 뛰어들 수 있는 놀이터라면 좋으련만, 눈을 돌려 다른 지역의 놀이터를 둘러보면 그나마 위안이 된다. 낡고 확실히 된 놀이터를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으로 만드는 실험이 이뤄지고 있었다. 놀이터에서 그네, 미끄럼틀만 타는 것이 아니라 모래, 진흙 등을 직접 만지며 자연놀이를 하거나 물놀이도 하고 숲 속을 모험하는 등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창의어린이놀이터'와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놀이권' 보장을 내세우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이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놀이혁신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공공실내놀이터와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해 아이들의 '놀이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다양한 놀이공간을 만들려는 움직임, 여름 뜨거워진 놀이터를 바라보니 더욱 기다려진다.

뉴스-in

제주시 녹색 생태도시 추진 '구두선'

자원재활용 큰 진전 없어

○…제주시가 올해 시정 운영방안 중 하나로 삼아 폐적하고 풍요로운 '녹색 생태도시'를 제시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시는 이를 위해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소각·매립량 감소, 재활용·재사용 촉진을 계획했으나 소각·매립량 감소는 사실상 전무하고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지방으로 반출하는 현상이 지속. 도내 한 환경전문가는 "단재정들이 폐자원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은 말로 그치고 있다"고 지적. 고대로그자

서귀포 노인시설 인권점검

○…서귀포시는 관내 17개 노인요양시설과 3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20개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점검을 이달 한달간 진행중. 노인요양팀장 등 2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불시에 시설을 방문해

임소 어르신에 대한 케어와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노인학대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 시 관계자는 "시설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는 차원에서 상반기중 인권점검을 벌였지만 이달에도 불시점검에 나시고 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학생외교관 역량강화 워크숍

○…제주도교육청이 제주학생외교관 2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 7일 도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제주대학교 사학과 양정필 교수가 '제주 4·3과 연계한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주제로 특강하고, 지난 2015년 학생외교관으로 활동한 남경훈씨가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래 리더가 될 학생들이 평화와 인권존중의 정신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상상 마인드를 지닌 리더의 비전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 표성준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양공 창삼 (요한·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8월 8일

아들 **양상훈**(아호소) 며느리 **김옥순**(아혜소)
상철(아해소) 황태경(로하하)
사위 **이완철**
딸 **양경숙**(혜하하) 서재현(혜트)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국산품
미국식품의약국 **SC1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율2로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7899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 쇼 날 FRP 페 인 트 총 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증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